

---

**서귀포 원도심 관광 개선방안 관련  
일본사례 조사보고**

---

2017. 5.

관광사회문화연구부 신동일

**제주연구원**

# 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## 1. 조사 배경

- 서귀포 원도심 지역은 이중섭 거리와 매일올레시장을 중심으로 서귀포의 가장 변화한 원도심으로 한때 침체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귀포 관광의 중요한 요소로 변화하고 있음.
- 이러한 변화는 제주시와 중문관광단지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제주관광을 보다 다양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산남 지역과 산북지역과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게 하고 있음.
- 이에 일본의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영향과 효과 및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귀포 원도심 관광에의 시사점 및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.
-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서귀포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서귀포 원도심 관광의 브랜드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.

## 2. 조사 개요

- 대 상 : 일본의 원도심 관광 활성화 관련기관 등
- 위 치 : 일본 도쿄도 및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
- 일 시 : 2017년 5월 21일~24일
- 목 적 : 일본의 원도심 관광 활성화 사례 조사
- 주요내용 :
  - ① 원도심 관광 활성화 사례분석
  - ② 일본의 원도심 관광 현황 등

### 3. 주요 조사결과

#### 1) 요코하마 모토마치와 도쿄도 키치쥬지

- 요코하마 모토마치는 1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쇼핑거리로 명품과 대중적 상품들이 적당히 섞여 있어 누구에게나 매력을 주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음.
- 거리 양편 상점들은 오래된 건물이나 새 건물이나 할 것 없이 모두 1층 건축선을 후퇴시켜 고객들이 비나 햇볕을 맞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'콜로네이드 아케이드'를 만들어 각 점포들의 다양한 개성 사이에서 거리의 일체감을 유지하는 상징이 되고 있음.
- 모토마치에서 언덕 쪽으로 '야마테' 지역과 연결되는데 모토마치는 개항 당시 외국인들의 단골가게가 모여 형성됐고, 야마테 지역은 외국인과 상류층 주거지였음. 이 때문에 야마테 지역에는 외교관 저택 등 문화재로 지정되고 보호받는 전통있는 건물과 아름다운 정원들이 많음.

#### ☑ 요코하마 '미나토미라이21' 프로젝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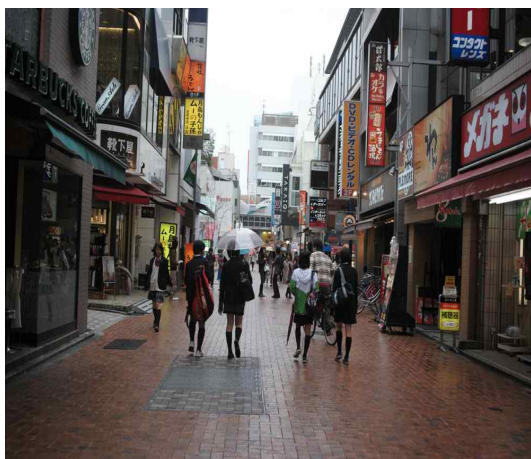
- 요코하마시는 도시로서의 자립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'미나토미라이21'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구상과 함께 '종합적인' 도시만들기를 1960년대 말부터 시작했음.
- 그리고 1971년 일본 최초로 시 행정부서 내에 도시디자이너가 배치된 도시디자인전문팀을 설치했음. 도시디자인전문팀은 1982년 도시디자인실로 발전했으며, 37년간 4명의 시장을 거치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성적인 요코하마 경관을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.
- 그러나 요코하마시는 강압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았는데 우선은 공공 공간의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, 그 다음 다른 건축물의 디자인을 유도했음. 디자인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도 법률, 조례가 아닌 '요강'과 '지역협정'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끈질기게 이끌어 낸 것이 특징임. 2004년 일본정부가 경관법을 제정한 뒤에도, 요코하마시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협의형식과

유도방식을 첨가한 특유의 새로운 경관조례를 만들었음(2006년).



[그림 2] 요코하마 모토마치 거리와 가게

- 도쿄도 키치조지는 리쿠루트에 의해 도쿄 주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 1위에 뽑힐 만큼 도쿄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이자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거리임.
- 인근에는 유명한 지브리미술관이 있기도 하고 이러한 명성에 힘입어 2016년에는 ‘키치조지만이 살고 싶은 거리입니까?’라는 TV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방문객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임.



[그림 2] 키치조지 골목과 쇼핑아케이드

## 2)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

- 일본 이시카와현에 위치한 가나자와시는 연간 800만 명 이상의 고나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관광도시임. 현재까지 전쟁이나 대규모 천재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시내에는 역사적인 거리가 많이 남아 있으며 많은 전통공예와 전통예술도 이어져 내려오는 도시로 2009년에는 유네스코가 창조도시로 지정하기도 하였음.
- 에도시대부터 상공업의 중심지로 400년간 번성하여, 호쿠리쿠(北陸)지역의 최대도시로 성장했었던 지역의 거점도시로서 경제, 산업, 교육의 중심지이며 전통공예 및 문화예술이 발달하였고, 전통일본과자와 전통술, 건어물 등 전통식품산업이 번성했음.
- 하지만 메이지유신 이후, 근대화과정에서 소외되어 현대적 도시산업을 육성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도시경제의 침체와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의 소도시로 쇠락함.
- 침체되고 쇠락한 원도심에 전통적인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노력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문화유산이 밀집된 지역에 현대적 호텔 건립계획이 발표되고 나서부터였음.
- 1980년대에는 전통건조물관리조례인 ‘코마치나미 조례’를 제정하여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관리하고, 1990년대에는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경관 도시로서 지역적 특성이 살아있는 도시로 성장했음.
- 1996년에 문을 연 ‘가나자와 시민 예술촌’은 가나자와에 연극 등 현대 문화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는데, 가나자와시는 1993년에 방적공장을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재활용하는 계획으로 바꾸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고 함.
- 예술인들의 거점시설로서 재생시킨다는 계획으로 방향을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옛것을 지키며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의 미래를 창조하는 대표적인 사례임.

-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근대와 현대를 테마로하여, 가나자와의 새로운 작품들을 전시 목적으로 2004년에 개관하였음. 이 건물을 설계한 세지마와 니시자와는 2010년에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기도 하였는데, 현재 21세기 미술관은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가장 큰 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름이 21세기인 것은 예술에 관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함.



[그림 3] 가나자와 창조도시 및 공예관광



[그림 4] 가나자와 시민예술촌과 사무국 전경

### 3) 시사점

#### (1) 전통과 현대의 조화

- 도쿄의 키치조지와 요코하마의 모토마치, 이시카와의 가나자와시 모두가 전통과 현대적 요소와 멋이 잘 어울리도록 하고 있음.
- 오래되었지만 깔끔한 건물들, 용도가 다한 방적공장을 활용한 시민예술촌으로의 재탄생 등 과거와 현재,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#### (2) 경관적 요소를 중시

- 요코하마 모토마치의 거리 양편 가게들은 오래된 건물이나 새 건물이나 할 것 없이 모두 1층 건축선을 후퇴시켜 고객들이 비나 햇볕을 맞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'콜로네이드 아케이드'를 만들어 각 점포들의 다양한 개성 사이에서 거리의 일체감과 경관미를 지키고 있음.

#### (3)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낸 관광자원

- 요코하마의 모토마치는 강압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았는데 디자인을 유도했음. 디자인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도 법률, 조례가 아닌 '요강'과 '지역협정'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끈질기게 이끌어 낸 것이 특징임. 2004년 일본정부가 경관법을 제정한 뒤에도, 요코하마시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협의형식과 유도방식을 첨가한 특유의 새로운 경관조례를 만들었음(2006년).

#### (4) 자유로운 이용환경의 조성

- 가나자와시의 시민예술촌은 철저히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함. 또한 타 지역주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300엔이라는 상징적 수준의 소액만 지불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